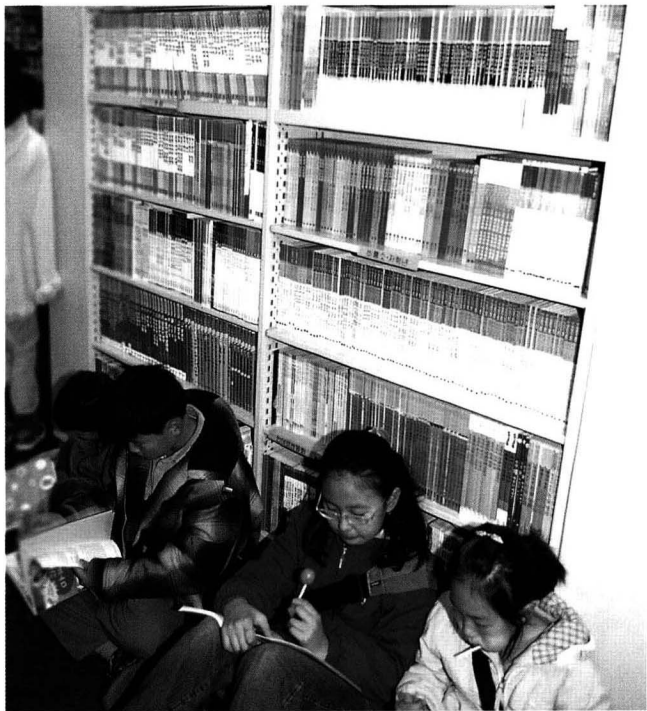


# 우리 어린이를 위한 동화, 한국 실정에 맞는 번역문화

글\_이명희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출판사들이 아동분야에 뛰어들면서 특히 시장진입이 쉬운 번역 그림책 출판을 시작하여 2002년도에는 전체 번역서 중 아동분야가 2,443종으로 성인문학을 제치고 단연 1위에 올랐다(만화 제외). 올 상반기 전체 아동서에 대한 통계를 보면 전반적 경기침체 영향으로 발행부수는 작년에 비해 20.4퍼센트나 줄었으나 종수는 거의 같았다. 지난 달 열린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도 우리나라 출판사들의 아동책 저작권 구매경쟁이 작년 못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세가 오히려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더니 아동번역서 출판에 대한 열기는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2000년도부터 홍수출간되고 있는 서양 그림책이 우리 유아들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앞으로 교육학 사회학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근래 우리나라의 외국 그림책 번역의 상황을 중간 점검해 보면서 번역그림책 출판에 대한 담론의 씨앗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문충실주의를 내세우는 번역 풍토**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번역그림책들은 대부분 '원전에 충실한 번역, 말하자면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아직 그림책 번역기술이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아동책 번역에 대한 깊은 불신의 역사 때문이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외국 그림책은 대부분 일러판의 불법복제 전집물로서, 일괄적으로 변형된 판형에 번역자 이름도 표기하지 않아 아동도서 관련인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중역과 오역의 비난을 받기 충분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영향으로 그림책 번역은 지금도 유난히 '정확성' 시비에 민감하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책보다 번역의 역사가 수십 년 먼저 시작된 성인물 번역에서는 정확한 번역이란 어휘 대 어휘의 번역이 아니라 의미의 번역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며 '창조적 오역'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에 반해 그림책 번역은 아직 정확하게 대응하는 단어나 표현 찾기에 집착하는 초보수준에 있는 것이다.

**콘텍스트가 함께 녹아 있는 번역**  
 러시아의 한 동화 작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느니 차라리 영국을 통째로 옮기는 게 더 쉽다"

고 했다. 아동 텍스트는 성인물보다 훨씬 간략한 데다 어린 독자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빈약하게 갖고 있어 그림책 번역에서는 특히 원문에 있는 것도 없애고 없는 것도 과감히 넣는 등 번역자의 풍부한 자의적 해석이 필요하다. 즉 그림책 번역자는 그 나라에서 해당 그림책이 출판 소비된 문화 사회적 배경까지도 알고 번역에 이를 녹여넣어 우리 어린이의 기호 공간에서도 원문이 가진 미학적·정보적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로운 텍스트를 빚어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정확한' 그림책 번역이다.

이 기회에 영어번역 그림책 10여 권을 원문과 대조해 가며

검토해 보았는데 영어 자체뿐 아니라 서양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크고 작은 오류들이 수도룩하였다. 한 예를 들자면, 미국 개척기의 테네시주 정착민들 이야기를 다룬 한 그림책은 어머머마한 과장과 허풍을 평평 섞어 들려주는 원전의 민담식 특성이 파악되지 못하여 엉뚱하게 암전한 동화로 바뀌어 있었다. “...snored down one last tree...” (코를 골아 마지막 한 그루 나무까지 쓰러뜨리고)을 ‘나무 아래서 자다...’로, “...lost him in the sky...” (보이지 않게 되었다)를 ‘잃어버렸다’로 번역하는 등 영문 이해의 미흡으로 결국 주인공 소녀가 꿈을 획 천당까지 내동댕이쳤다가 토네이도 올라미로 목을 꿰어 다시 땅으로 낚아채는 등 하늘과 땅 사이를 훑훑 휘젓는 통쾌한 스케일은 사라지고 말았다.

**외국 이름 그대로 쓰기와 정확한 번역**

우리 그림책 번역의 원문충실주의는 등장인물의 이름에서도 나타난다. 프레드릭, 코듀로이, 스팟, 바솔로뮤 커빈즈, 벤야민 등 유아들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외국 이름들이 제목에까지 충실히 고수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다른 나라의 그림책을 번역할 때는 주인공의 이름을 흔히 자기 나라에 맞춰 바꾼다. 예를 들어 엘즈비에따의 벨기에 원본은 《Flon Flon and Musette》(Pastel)인데 미국판에서는 주인공들의 이름이 《Jon-Jon and Annette》(Henry Holt & Co.)로 바뀌었다. 번역계약서에는 원저작권사의 허락하에 내용을 우리 시장에 맞춰 바꿀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그림책 출판계에서는 주인공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충실한’ 번역, ‘정확한’ 번역인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이다.

서양 그림책의 경우 등장인물이 사람은 물론 동물이나 인형인 경우에도 서양 어린이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당연하다. 자기 친구와 같은 이름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는 서양 어린이들의 이야기 몰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특히 어린 연령에서) 한국 어린이들에게는 트레버나 피터보다는 정균이, 보람이와 같은 한국 이름을 가진 주인공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쉽다.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 그림책의 이름을 우리 이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우리 어린이의 간접체험의 밀도를 높여주고, 또한 외국 것의 창조적 ‘한국화’의 한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혹시 이 시대의 영어조기교육 붐과 세계화 구호를 상기고 그림책에 나오는 서양 이름이 어린이들에게 영어와 외국문화에 익숙하게 해주어 좋다고 믿는다면, 장차 빈대 잡기 위해 초

가삼간을 태운 처지가 될 것이다. 또 영어유치원까지 다니는 요즘 아이들에게 서양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주장에는 한국 어린이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한국어를 쓰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겠다.

**왜 곡 된 그림책 번역비**

우리의 번역 그림책 출판계가 급속한 팽창으로 여러 면에서 과도기에 있다는 증거는 번역비에서도 잘 나타난다. 성인물에서 처럼 200자 3,500원으로 계산하면 10만 원 이내로 충분한 32페이지짜리 영어 그림책의 번역료가 30만 원 안팎이며, 인지도 있는 작가의 경우 50만 원 이상을 받기도 한다. 번역자들은 어린이 글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우지만, 자연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서 번역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외국어 해독력,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높은 그림책 번역료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급팽창한 그림책 번역수요를 공급이 미처 따르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실력 있는 성인물 번역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사례가 후한 그림책 번역에 모여들고 있고 많은 신인들 역시 진출하고 있다. 이들이 노련한 아동 편집자들의 협조로 어린이책 번역의 노하우를 빠르게 축적해 가면서 성인물보다 수십 년 뒤늦게 출발한 그림책 번역은 그 수준이 곧 향상되고, 번역료도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몇 년 사이 유럽과 미국의 웬만한 주요 아동 출판사들의 기존 그림책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에 팔려 이제 아동책을 시작한 출판사들은 사울 책이 없다고 탄식하는 지경이다. 특히 유명 작가의 경우 모든 작품이 한국에 저작권이 팔렸으며 올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계약된 책들도 대다수 신간이었다. 그동안 저작권이 구입된 서양 그림책들의 양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수년 간은 지금 같은 번역 그림책의 홍수가 지속될 것으로 짐작된다. 내년에도 한 달에 100권 이상 되는 번역 그림책이 출간될 텐데 이 시점에서 아동번역출판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그림책 번역의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

이 글을 쓴 이명희는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과학서와 어린이 그림책에 관심이 많아 《풀하우스》(사이언스북스) 외 교양과학서 3권과 《신인장 호텔》(마루벌) 외 그림책 40여 권을 번역했으며 《자연, 생명 그리고 인간》(연세대학교출판부)을 공동 집필했다. 2003학년도 과학고용 국정교과서 《고급화학》과 《과학사》(지학사) 집필위원으로 참여했고, 한국과학저술인협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현재 도서출판 마루벌의 이사로 있다.

---